

통권 제 228호

강남. 라 00943

2566  
2022

10

원정 대상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5  
시절 인연




참회 불교이야기



죽비소리  
다시 걸은 남산길

영원한 신리와 함께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불교총지중



종조법설집

제3장 잠언편 p220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천하를 행복 찾아 돌아다니다 보니 행복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말, 불교가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경전에서 찾은 지혜 \_ 39  
생명의 무상  
\_ 불교총지종 법장원



가배이야기 \_ 50  
커피의 한국 전래와  
제조과정  
\_ 감상미



여행여담 \_ 60  
청춘의 춘천上  
\_ lovely찌이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총지종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도를 염원합니다.

다르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 12 불교이야기
- 18 살다보면
- 24 산책
- 26 우리절 노래꽃
- 28 마음의 등불
- 32 지혜의 뜨락
- 36 십선성취
- 39 경전에서 찾은 지혜
- 42 죽비소리
- 46 디딤돌
- 50 가배이야기
- 54 차향기
- 57 문화재 해설
- 60 여행여담
- 66 결망에 담긴 이야기
- 68 뜻 바꾸기
- 70 씨앗 한 알
- 74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 78 법회일정
- 불공 잘해라 - 제1장 시절 인연 - 김천
- 참회懺悔 5 - 화령 정사
- 우정 주의보 - 이옥경
- 소백산 풍기 - 김대곤
- 우리도 부처님같이 - 묘원화 전수
- 나는 완전 바보, 그대는 반절 바보 - 한국고전번역원
- 친밀한 사이의 정의 - 방귀희
- 불가사의 - 남해 정사
- 생명의 무상 - 불교총지종 법장원
- 다시 걸은 남산길 - 김봉래
- 명상으로 마음근력 다지기 - 신진옥
- 사찰의 커피문화 - 감상미
- 차의 성질 2 - 김정애
- <국화와 나비> 네 형제가 함께한 그림 - 위드다르마 편집실
- 청춘의 춘천上 - lovely찌이
- 가득 차 있느냐? - 법일 정사
- 탑묘塔廟 - 김재동
- 나이가 들어갈지라도 - 법상 스님

##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

미국의 ‘앤 그루델’은 어린 시절  
구순구개열 장애로 인해 학교 친구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앤이 다니던 학교에서  
속삭임 검사(The Whisper Test)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검사는 칸막이를 치거나 학생이 한쪽 귀를 막은 채,  
선생님이 작게 말하는 소리를 따라 말하게 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집중력을 살피는 검사였습니다.

선생님은 ‘하늘이 파랗다’, ‘바람이 시원하다’ 등의  
간단한 문장을 말했고 학생 대부분은 정확하게  
큰 소리로 따라서 말했습니다.

앤은 이 간단한 검사에 누구보다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에게 하던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네가 내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앤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이세요?”

그러자 선생님은 앤에게 인자한 목소리로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고말고 나는 정말 네가  
나의 딸이었으면 좋겠어!”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앤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앤은 이후 자기의 장애로 마음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결국 나중에는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한마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편지 2022년 8월 19일 자>

## 불공 잘해라 제1장 시절 인연

###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조자'  
'인생탈출-태허 홍선 평전' 등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卽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 5화-다시 만주로④



1944년 귀국 전 하얼빈에서 동료들과 맨 오른쪽 대성사

하얼빈으로 가는 길은 대성사가 어린 나이에 걸어서 떠났던 망명길과는 달랐다. 단출히 꾸린 짐과 함께 기차를 타고 경성역으로 가서 만주행 급행 열차 '노조미'를 타고 개성 - 평양 - 신의주를 거쳐 두만강을 건너고, 만주국 수도 신경에 도착할 수 있다. 그곳에서 다시 특급열차 '아세아'로 갈아타고 목적지인 하얼빈으로 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걸어서

몇 달이 걸렸던 옛길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일본말로 희망을 뜻하는 '노조미'와 '아세아'는 만주철도의 자랑거리였다. 당시 최고의 기술로 만들었던 특급 고속철도가 한반도에서 출발해 국경 도시 하얼빈까지 이어진 것이다. 가족을 이끌고 조국 땅을 떠나는 것은 마음 아픈 사건이었지만, 그 앞날에 희망이 있기를 바랐을 것이다.

부부는 미지의 내일에 대한 설레임과 걱정으로, 어린 아들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신기하여 지루할 틈없이 하얼빈에 닿았다. 하얼빈은 추운 곳이다. 봄이 오는 듯싶으면 잠깐 여름이 스쳐가고 곧장 겨울이 시작되었다. 9월이 되면 도시는 석탄 때는 냄새와 연기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외투 깃을 세워 바람을 피해 종종걸음으로 걸어야 했다. 밀양과는 전혀 다른 기후와 풍토, 낯선 문화가 있었다.

대성사가 하얼빈에 자리를 잡고 얻은 일자리는 하얼빈 지방법원 소속 대서 업무. 관청에서 익힌 행정업무로 법원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다. 1940년 12월 18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만주국에는 최고법원 아래로 5곳의 고등법원과 그에 딸린

25곳의 지방법원이 있었다. 그리고 하얼빈에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함께 있어 법원 업무가 많았다. 사람들은 갖가지 송사

에 시달려도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손해를 입는 일이 잦았다. 그들을 대신해서 법원 서류를 쓰거나 간단한 법률 상담을 하는 일은 나름 보람도 있었고 수입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하얼빈의 중심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역이다. 작은 어촌 마을이 만주철도 종착역이 되면서 도시로 된 터라 역은 하얼빈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졌다. 도시 옆을 흐르는 송화강(송화강, 松花江)엔 최신식 기관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고, 강가에는 붉은 돛을 단 홍선이 물고기며 생필품 등을 부지런히 싣고 하역하고 있었다. 시절의 사정을 제하고 본다면 한 없이 평화롭고 활기차며 현대적인 도시가 하얼빈이었다.

법원은 신시가지인 난강(南崗) 지구에 있었다. 난강지구는 새로 조성된 신시가지였다. 새로 길을 낸 계획도시로 반듯반듯한 길이 바둑판처럼 나 있는 곳이다. 난강구에는 호텔과 병원을 비롯해 각종 관공서와 업무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 있었다. 도심을 관통하는 완만한 언덕길 회하로(淮河路)가 송화강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졌다. 그 길을 따라 최신 상품을 파는 백화점과 우체국, 은행과 함께 각종 관공서들이 들어서 있었다. 하얼빈에서 난강지구는 가장 변화하고 화려하며 이국풍이다. 현재 하얼빈시 난강구 인민법원은 당시의 위치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법원은 회하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군 교육 관계 업무로 행정업무를 담당

했던 경험은 법원 업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이들도 많았고, 이들은 행정관계나 법을 몰라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많았다. 그런 이들에게 대성사의 지식과 경험은 크게 도움이 되었다.

전쟁의 기운은 북만주 하얼빈까지도 몰려들었다. 1941년 11월 12일자 부산일보에는 ‘반도의용대 하얼빈 도착. 만선일여(滿鮮一)를 실현’이란 기사가 실렸는데, 근로정신대로 징발한 조선 청소년 150명이 하얼빈시에 도착했다는 내용이다. 조선 각지에서 청소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인력을 모아 전쟁에 필요한 강제 노동력을 수급하여 접적 지역인 러시아 국경지대까지 끌고 간 것이다. 대성사는 이곳에 근무하면서 유럽의 최신 유행뿐 아니라 혁명 후 소련의 사정 등 세계정세를 민감하게 듣고 파악하게 된다. 이 시절부터 세상이 돌아가는 사정에 관심을 기울였다. 늘 단파 라디오를 지니고 세계 각국의 방송을 듣는 습관이 생겼다. 이후 평생 아침에 눈 뜨면 자연스럽게 라디오를 켜고 뉴스를 들으며 세상사 기운과 이치가 운행하는 사정에 귀를 기울여 지켜보았다.

법원 대서 업무를 한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 이듬해인 1941년 상당한 재력을 갖춘 대성사의 인척이 북만주에서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일제의 군수물자 징발에 식



1941년 중국 주하현을 편력하시던 시절 친구들과 함께 기운데 대성사

량은 우선순위가  
였다. 곡식 값  
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  
다. 인척은 만  
주 사정에 밝  
고 업무 처리  
가 꼼꼼하여  
빈틈없으며 직  
원들을 잘 통  
솔하는 대성사  
에게 정미소를  
함께 경영하자  
고 제의했다.

정미소를 운용하는 데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만주국의 허가를 얻어내는 일이었다. 행정처리와 관청 일에 밝은 대성사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은 인척이 대기했다. 적합한 곳을 찾아 결정한 위치는 하얼빈 시내에서 동남쪽으로 1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주하(珠河, 주허)란 곳이었다. 주하현은 일본 패망 후 중국 항일영웅 조상지(趙尙志, 자오상즈)를 기

려 상즈시(尙志市)로 이름을 바꿨다. 하얼빈시 행정구역에 속한 곳이다. 우리로 치면 서울과 붙어 있는 과천과 같은 셈이다. 주하현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스키장이 있는 곳으로 겨울이면 휴양과 여가를 즐기는 명소이다. 게다가 위치가 하얼빈시와 목단강시(牡丹江市) 사이에 있어서 교통과 교역의 길목이다. 한마디로 정미소를 경영하기에는 더할 바 없이 적합한 곳이다. 정미소 문을 열자 대성사의 빠른 일처리와 공정한 업무처리는 일대의 상인들과 동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1941년 10월 대성사는 주하현 정미소업자들의 조합인 도정조합의 이사장으로 뽑혔다. 그 다음해에는 주하현 미곡배급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1940년부터 일제는 공출제도를 만들어 생산된 양곡을 모두 빼앗고 식량으로 잡곡과 대두박 등 사료를 대신 지급하기 시작했다. 만주 일대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 쌀은 철저한 통제를 받았다. 식량배급제는 일본인들은 쌀로 배급하고, 조선인에게는 쌀 35퍼센트에 좁쌀 65퍼센트를 섞어서 배급했다. 이 문제는 조선인들에게 큰 저항을 일으켰다. 말로는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조선인과 일본인에 대한 차별이 식량과 징용 등에서 크게 드러나고 있었다. 반일의 기미가 커지자 일제는 만주의 수도인新京과 하얼빈 등 대도시 지역 조선인들에게도 식량 전부를 쌀로 지급하기로 했다. 자칫 폭동이라도 일으킬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유희적인 태도는 점점 중요해진 징용과 징병 거부를 무마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정황 때문에 도정조합과 배급조합에 주목과 감시의 눈길이 쏠리는 것은 당연했다. 쌀값이 오를 대로 오르고 있고, 배급에 대한 불만은 커져 갔으므로 공명정대하게 일처리를 하지 않으면 세상 모두로부터 원망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성사의 성품은 이런 불만과 의심을 충분히 잠재워 주하현에서 쌀 배급과 관련된 항의는 없었다.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사익보다는 대의를 따르는 것이 대성사 가문의 가풍이었다. 그런 가풍대로 공과 사를 철저히 지켜 정미소 경영과 조합 업무를 처리해 갔다. 사업은 잘 되어 입고 먹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세상 사람과도 원만하게 지냈으며 나름 존경도 받고 있었다. 세상은 다시 한 번 커다란 폭풍을 앞두고 있었지만, 대성사 가족은 잠깐이나마 풍족하고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이때부터 대성사는 종교, 특히 불교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된다. 당시 중국과 일본 불교계는 큰 변화를 맞고 있었다. 청이 망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자 중국 지식인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상황 속에서 어떤 가치와 이념을 추구해야 할지 시대적인 고민을 한 것이다. 과거의 유교 사상은 더는 빛

이 되지 못했고, 물질 중심의 서구사상과 철학은 아직 설익어 보였다. 이 때문에 불교에 주목하는 이들이 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양문회(楊文會) 등이 열어간 불교의 새로운 길은 대성사를 사로잡았다. 그들은 산중불교에서 벗어나 거사 중심의 생활불교를 주창했다.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출판했으며, 불교를 알 수 있는 현실적인 언어로 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는 하얼빈의 대성사도 깊이 주목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어로 출간되기 시작한 새로운 흐름의 불교 서적과 불경을 구해 탐구하기 시작했다. 시대는 새로운 이념과 사상, 옛것과는 다른 길을 요구했다.

일본도 불교가 새로운 사조의 물꼬를 터뜨렸다. 특히 1930년 교육자들이 모여 만든 법화종 계통의 창가교육학회(創價教育學會)는 불교계가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을 지지하는 점을 반대하여 법화경 중심의 새로운 재가불교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중국과 일본 모두 승단 중심의 불교계에 비추어 재가자들의 수행과 실천을 주장했다. 대성사는 이런 시대의 요구를 주시하면서, 그들이 펴낸 책과 경전을 모으고 공부하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읽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긴 경전과 강론이 산을 이루고 지혜는 바다처럼 모여 후일의 기반이 되었다. 것처럼 하얼빈 시절은 밀교의 가르침으로 세상에 길을 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의 역할을 하였다.

## 참회懺悔 5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보디미트라 회장

## 참회의 공덕

참회하는 공덕에 대하여 《분별선악보응경 分別善惡報應經》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저지른 악업을 드러내어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거듭 참회하면 비록 나쁜 업을 지었더라도 과보를 받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참회를 통해 죄업의 과보를 없앨 수 있습니다. 복덕 또한 늘릴 수 있는데 《인선경 人仙經》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오욕으로 착하지 못한 업장을 지었더라도 뒤에 착한 벗을 친근하여 묘법을 잊지 않고 생각하며, 탐욕과 쾌락을 버리고 다시 나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낙 가운데에서 낙이 생기고, 즐거움 가운데에서 즐거운 마음이 다시 생겨난다.”





이러한 말씀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제도된 살인마 앙굴리말라와 같이 비록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도 지심으로 참회하면 가벼운 과보로써 대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연이 되어 점차 공덕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앙굴계경》에서는 “전에 음행과 방일을 했더라도 뒤에 고쳐서 다시 범하지 아니하면, 이 밝음이 세간을 비추어서 달에 운무가 사라진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증유경 未曾有經》에서는 “앞의 마음으로 악을 지은 것은 구름이 태양을 가린 것과 같고, 뒤의 마음이 착함을 일으키는 것은 햇불이 어두움을 없애는 것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참회를 통하여 지혜가 솟아오르게 되는 것을 설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전에 나타난 참회의 공덕에 대한 말씀을 종합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모든 성현을 가까이 하게 된다.
- ② 모든 중생들이 즐겨 보고 기꺼이 듣는다.
- ③ 대중과 함께 할 때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 ④ 좋은 명성을 얻는다.
- ⑤ 보리지혜로 장엄할 수 있다.

## 참회와 감응의 원리

일반 사람들은 불법을 배우고 수행을 하게 되면 대개 감응이 있을 것을 바란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감응이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왜 그럴까?

감응의 원리는 달이 강물 속에 비추어 지는 것과도 같다. 불보살님은 밝은 달처럼 끝없는 허공 속에 떠돌면서 땅위의 모든 중생들에 대한分別심이 없다. 그러나 강물이 더러우면 달빛이 비추지 않고, 깨끗하며 물결 없는 강물에 달이 저절로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중생의 마음속이 청정하고 더러움이 없다면 감응은 언제든지 나타난다. 그러므로 감응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 달이 없는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이 청정하지 못함을 탓해야 할 일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수시로 참회의 청정수로 마음의 때를 씻어 낸다면 자연스럽게 제불보살님들과 서로 감응 왕래할 수 있는 것이다.

## 참회를 통한 자기 정화와 사회 정화

모든 경전에 설하기를, 마음은 우리들의 주인공이라고 하였다. 불도를 이루거나 훌륭한 수행자가 되려면 마음에 의지하여야 하

고 육도의 굴레에서 생사의 괴로움을 겪는 것도 다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단지 목욕으로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만 알고 마음을 닦는 법을 모른다. 우리들의 마음을 오욕 속에서, 남들과의 시시비비 속에서 멋대로 구르도록 하면서 이해 득실만을 따진다. 해탈의 날을 맞이하기란 여간 까마득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정화하여야 하는가? 세탁을 통하여 의복을 깨끗하게 하듯이 부끄러워하고 참회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힘이 된다. 부끄러움을 알고 이를 드러내어 참회하는 마음은 온갖 죄업으로 얼룩진 우리들의 생활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자유자재하며 풍족하고 걱정이 없는 삶으로 바꿀 수 있다.

참회하는 것은 악을 쫓고 선을 지향하는 방법이다. 오늘 날 복잡다단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개인의 욕심을 위해 다수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다. 갈수록 사회질서가 무너지며 불안해지고 있다. 만약 사람들이 누구나 다 부끄러움을 알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와 민족에 누가 되는 일은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사회대중과 부모형제 및 스승 친구들에게도 역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은 더 나아가서 사회와 대중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려는 생각을 일깨워주며, 이에 우리 사회는 불안과 근심으로 부터 해방되어 즐거움과 평화가 충만한 세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참회는 자신의 죄업을 소멸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를 더욱 건전하고 안온하며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 따라서 부끄러워하고 참회하는 것은 궁극의 행복인 열반을 향해가는 필수적인 법문이자 평온하고 안정된 사회를 건립하는 가장 중요한 보물이다.

## 우정 주의보

###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30년 지기인 사실주의 소설가 에밀 졸라의 소설 <작품>을 읽은 후기 인상주의 화가 폴 세잔은 졸라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게 됐다며 격노했고, 그 후 다시는 졸라를 만나지 않았다. 소설책 한 권이 그들의 오랜 우정을 공중분해시키고 만 것이다.

소설 <작품>에서 실패한 천재 화가 클로드 랑티에는 세상의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작품세계에도 만족하지 못한 채 결국 그림 앞에서 목을 매 자살한다. 누가 봐도 세잔이라고 짐작할 만한 인물이었다. 그즈음, 예술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명성을 떨치던 졸라와 달리 미술계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심한 우울증과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세잔에게는 치명타였을 것이다. 졸라는 주인공 랑티에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예술가들이 겪는 창조의 어려움을 투영시키고자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을 연상시키는 인물, 자신의 현실과 흡사한 줄거리는 세잔에게 심한 배신감과 함께 패배자로 죽으라는 조롱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 좌절의 늪에 빠져 있던 세잔으로서의 믿는 도끼에 찍힌 발등이 몇 배 더 아플 수밖에.



오해든 지나친 피해의식이든, 친구로부터 소외되고 배척당하는 건 참기 힘든 모욕이었을 테니 말이다.

세잔과 졸라처럼 오랜 세월 깊은 정을 나눠 왔던 친구들이 앙숙이 되는 일을 가끔 보게 된다. 40년 지기인 A와 B도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채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꼽혔든, 19세기 문학의 거장으로 추앙을 받았든, 평범한 도시민의 삶을 살았든, 사람의 감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진실은 알 수 없으나 세간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세잔은 졸라가 명성을 얻으면서 불친절해지고 은혜를 베풀듯이 자신을 대한다고 생각했고, 졸라는 세잔의 천재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인 문제를 담지 않는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를 실패한 화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화를 부르는 단초가 되었을 법하다.

누구보다도 가까워 보였던 A와 B가 결별의 수순을 밟게 된 까닭도 이와 비슷하다. 개인의 사생활이라 전후 사정을 시시콜콜 밝히기는 어렵지만 일어나야 할 일이 마침내 터졌다고나 할까. 세잔과 졸라의 결별이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의 조짐을 보여 왔듯이 서서히 정상궤도를 벗어나고 있는 A와 B의 관계 역시 초읽기에 들어간 시한폭탄 같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소설가로 부와 명예를 얻은 졸라가 불운하고 가난한 세잔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준 것처럼 A 역시 그리 넉넉하지 않은 B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잔이 졸라의 호의에서 불친절과 오만을 느꼈던 것처럼, B는 눈앞에서 보여주는 따뜻한 면면과 다른 A의 또 다른 얼굴에서 번번이 심

한 배신감과 함께 굴욕감을 느껴야 했다. 이곳저곳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A의 험담은 B의 마음에 씻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남기곤 했다.

A의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B와의 만남을 꺼렸다. 나 역시 B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었다. 도량 넓고 늘 베풀기만 하는 A에게 주야장천 빨대를 꽂고 사는 몰염치한 친구 B를 누가 좋아하겠는가. 모난 성격에 욕심 많고 고집 세고 이기적이며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데. 고마움에 대한 보답은커녕 친구인 A를 시샘하고 견제한다는 B, 그렇게 뻔뻔한 인간을 끝끝내 끌어안고 가는 A-그게 A가 말하는 B였고, 하해와 같은 A의 우정이었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고, 사실도 진실도 아닌 얘기를 전해들을 때마다 B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순수하고 인정 많았던 A를 떠올리며 아니려니,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몇 번이고 자신을 다독였지만...

장두노미藏頭露尾라고 했던가. 머리는 숨겼지만 미처 숨기지 못한 꼬리가 드러난 건 A 아들의 결혼식 피로연에서였다. 지방에서 올라가느라 새벽 첫차를 탔지만 예식이 끝난 후에야 도착한 B는 폐백을 받고 있는 A를 기다릴 겸 피로연장으로 갔더라. 빈 자리를 찾아서 간신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는데 뒤에서 들려

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그 친구는 안 왔나 봐? 부조까지 떼먹은 건 아니겠지?”

“설마! 아무리 짠순이라도 부조는 했겠지. A한테 받은 게 얼마데!”

“고마운 걸 통 모른다잖아. 욕심은 하늘을 찌르고.”

“잘난 척은 엄청나게 한다며,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그 얘기 들었지? 그 친구 말이야, 사는 게…”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만리장성이었다. 쫓기듯 피로연장을 빠져나오기는 했으나 아뿔싸! A와 딱 마주치고 만 것이었다. A는 반가워 죽겠다는 얼굴로 B의 손을 잡아끌었다. 지난했던 B의 인생사를 속속들이 까발리고 덧칠해서 어두운 과거지사로 전락시킨 A가,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던 B의 희생조차 야박하고 인색하다는 말로 변질시킨 A가 우아한 미소로 B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그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세 상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친구야. 동생들 공부시키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뒷바라지하고, 자기 앞가림 똑 부러지게 잘하고, 씩씩하고, 알뜰하고. 내가 말했지? 정말 본받을 게 많은 친구라고.

절교보다 절연에 가까운 두 사람의 관계가 ‘우정은 상호 간에

오가는 신뢰’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되새기게 한다. 친할수록 한 번 쌓인 오해는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걸 종종 잊어버리곤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은 얼마나 오래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인가에 따라 격이 달라지는 데 말이다. 『테라가타』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남보다 뛰어나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진실조차 자신의 틀에 맞추기 마련이라 오랜 세월이 무색해지고 만다.

굳이 인연에 연연할 필요가 있을까. 누군가에게 흠집을 내고 상대를 깎아내려서 자신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상대를 밟고 올라서면서까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관계라면 애써 그것을 이어 붙이려 하지 않는 것이 답일 수도 있겠다.

‘명예를 얻고자 하면 계율을 지키고, 재물을 얻고자 하면 보시를 행하고, 덕망을 얻으려 하면 진실한 삶을 살고, 좋은 벗을 얻고자 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잡아함경』의 가르침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 물질과 명예와는 상관 없이 덕망을 얻을 수 있다. 좋은 벗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소백산맥 언저리  
시원한 바람을 안고 자리한 곳

영춘과 영월을  
어깨에 걸고 바람이 노래하는 곳

관히 나부끼는 깃발  
옛날이 서성이는 듯하다

희방폭포의 세찬 흐름이  
결코 부담스럽지 않다

무심히 달려가는  
구름도 하얀 가슴이 부끄럽지 않다

푸름은 푸름으로 옷을 입고  
하늘은 더 없이 맑았어라

풍기는  
이렇게 오늘도 짝어낸다

아주 맛난 색으로...

\*경북 영주시 풍기읍\*

# 찬불가

## 〈우리도 부처님같이〉

맹석분 작사, 이달철 작곡

묘원화 전수  
벽롱사

# 우리도 부처님같이

Andantino ♩ = 80

맹석분 작사 / 이달철 작곡

1. 어 둠은 한 - 순간      그 대로가 빛 이 라 네  
2. 원 망은 한 - 순간      모 든 것 이 은 혜 라 네

바 른 생각 바 른 말      바 - 른 - 행 동 이  
지 족하는 마 - 음      감 사 하 는 마 음 이

무 명을 거 - 두고      우 주를 밝 - 히 는  
나 누는 기 -쁨을      맛 볼 수 있 - 는

이 제는 가 - 슴 깊 이      깨 달을 수 있 - 다 네      정진  
이 제는 여 - 실 히      깨 달을 수 있 - 다 네

하 세 정진 하 - 세      물 러 남 이 없 는 정 - 진      우리

도 부 - 처 - 님 같 이      우리도 부 처 님 같 이

찬불가 중에서 가장 친숙한 곡을 꼽으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노래가 이달철 작곡가의 〈우리도 부처님같이〉이다. 이 노래는 2008년 12월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가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찬불가요 작곡부문 대상 수상작이다.

시상은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에서 창립 27주년을 맞아 이미 보급된 찬불가요 1,178곡에 대한 불교 신도들의 선호도와 음반판매, 보급, 제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등 81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거쳐 1위로 선정되었다. 당시 불교계 신행단체가 찬불가요 보급과 선호도를 전국적인 설문지 방식으로 조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한 이 노래는 1991년 BBS 불교방송에서 '불교방송 찬불가 보급 5개년 계획'에 따라 발표된 '91년 불교방송 신작 찬불가'이기도 하다.

맹석분님이 작사한 〈우리도 부처님같이〉는 불교의 중요교리인 사성제 중에서 고통을 소멸하기 위한 길을 다루는 도성제(팔정도)가 잘 녹아있다. 가사 중에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무명을 거두고 우주를 밝히는” 부분은 팔정도의 정사유, 정어, 정업을 실천 수행해서 고통을 소멸하고 번뇌를 없애 열반에 이른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잘 설명하고 있다. 후렴구를 통해 바른 노력으로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 또한 정정진의 덕목이다.

누구든 이 노래를 듣고 가사를 외우면 불교의 핵심교리를 알게 된다. 가락도 쉽고 아름답기에 애창될 수밖에 없다. 참으로 매력적이고 멋진 노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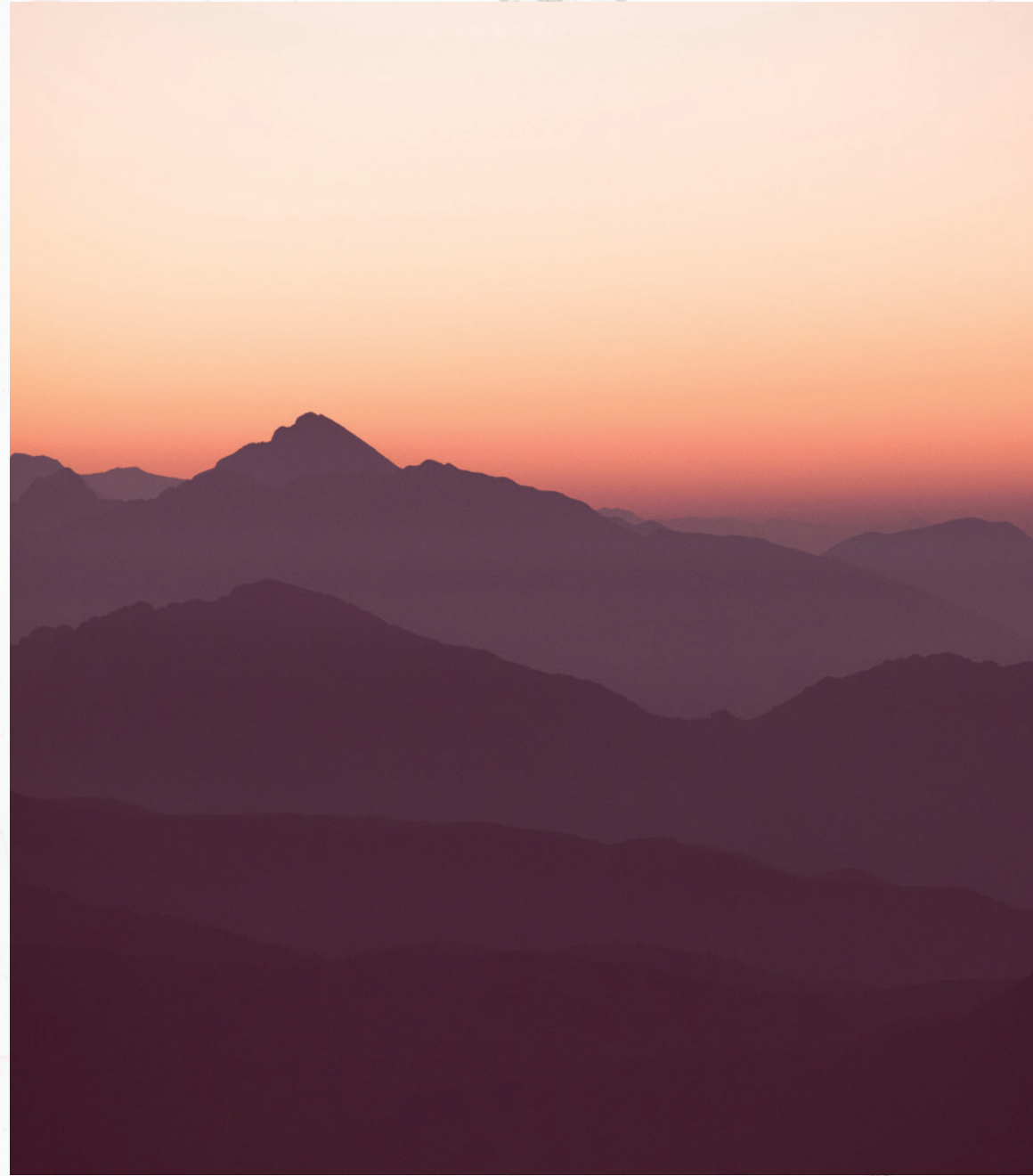
# 나는 완전 바보, 그대는 반절 바보

김형술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我是全癡君半癡	아시전지군반치	나는 완전 바보 그대는 반절 바보
伍更呼喚句成時	오경호환구성시	오경에도 시를 지어 그댈 부르네.
待君不至重尋夢	대군부지중심몽	기다려도 오지 않아 꿈에까지 찾았건만
君到吟詩我不知	군도음시아부지	그대 와서 읊조릴 적 나는 알지 못했노라.

시인은 첫 번째 구에서 이태명의 호인 ‘반치<sup>半癡</sup>’를 장난스럽게 활용하여 자기는 ‘완전 바보<sup>全癡</sup>’이고, 이태명은 ‘반절 바보<sup>半癡</sup>’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 구를 보면, 시인은 오경이 다 돼서야 시를 완성하고, 기쁜 마음에 벼를 불러 함께 시를 수창하려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반가운 벼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결국엔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3구의 ‘꿈에까지 거듭 찾았다<sup>重尋夢</sup>’는 표현은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었고, 이태명의 꿈까지 꾸었다는 말로 깜박 잠이 들었다는 것을 재미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4구를 보면 이병연이 쿵쿵 자는 사이, 이태명이 찾아왔고, 이태명은 자고 있는 이병연을 앞





에 두고 화답시를 읊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나중에야 알게 된 이병연은 겸연쩍고 미안한 마음에 '자기는 완전 바보'라 하면서 그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시로 적어 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기다리다 쿨쿨 잠이든 이병연의 모습과 그 앞에서 시를 읊는 이태명의 모습이 그려져 절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친구를 불러놓고 친구가 온 줄도 모르고 쿨쿨 잠이 든 이병연. 그리 우아하거나 단정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병연은 왜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시로 그렸을까요?

시인은 새벽녘에야 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는 창작의 삼매에 빠져 날을 훌쩍 샌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시 완성에 그치지 않고 절친한 벗, 이태명을 부릅니다. 이태명이야말로 자신의 작품을 제대로 알아 화답해줄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런데 이태명은 바로 오질 않습니다. 왜 일까요? 새벽이라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4구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이태명이 즉시 오지 않은 것은 자신도 이병연의 시구에 화답할 만한 작품을 고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만족할 만한 시가 지어지자 이태명은 이병연을 찾습니다. 그런데 기껏 찾아갔더니 정작 이병연은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태명은 자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시를 목청껏 읊조립니다.

시에 그려진 두 사람의 모습은, 상식과 법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두 일탈된 모습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새벽에 시가 되었다며 친구를 부르겠습니까? 또 무례한 부름을 언짢아 할 만도 하건만 그 부름에 응하여 자고 있는 이병연을 앞에 두고 시를 읊은 이태명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이 소위 상식과 예의를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두 사람 간의 깊은 우정이 있었기 때문이요, 둘째는 이 두 사람이 상식을 넘어서는 창작에의 열정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경에 시를 지어 벗을 부르고, 또 그 벗은 자고 있는 벗 앞에서 시를 읊조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 작품은 장난스러운 웃음을 빌어 두 노시인의 깊은 우정과 예술혼을 담아낸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시인이 보인 예술적 교감은 진솔하고 깊은 사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병연은 시를 통해 일탈도 멋진 일로 포장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게 아닙니다. 말하고 싶었던 점은 바로 벗 사귀이의 진실함이었습니다. 가식과 허위로 꾸며진 사귀이 아니라, 설령 일탈적인 모습일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귀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짧은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친밀한 사이의 정의

###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E美지> <숫대평론> 발행인  
 저서 : <불교의 복지사상> <배제와 포용>  
 <싱싱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내가 맡고 있는 ‘숫대평론’의 가장 큰 행사는 구상숫대문학상이다. 이 상은 2015년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권 100호를 끝으로 폐간된 <숫대문학>에서 제정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문학지 <숫대문학>에서는 1991년부터 가장 뛰어난 작품을 선정하여 숫대문학상을 시상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지금은 고인이 되신 구상 선생님께서 상금을 마련해주셨다. 구상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5년 전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숫대문학상 상금을 미리 내놔야겠다’고 하시며 5천만원을 주셨다. 그때가 2000년이였다. 5천만원은 너무나 큰돈이기에 나는 그 돈을 들고 바로 은행으로 가서 적금을 들었다. 2년 후 구상 선생님은 5천만원을 더 주셨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 서재를 정리하셨다며 1억을 또다시 내주셨다. 상금으로 사용하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단서도 붙이지 않으셨다.

2004년 구상 선생님께서 소천 하신 후 2억이라는 구상숫대문학상 기금이 마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장애시인들에게 구상숫대문학상은 가장 영예롭고 권위 있는 상이 되었다. 2022년

수상자는 뇌성마비로 보행은 물론 언어장애까지 있는 설미희 시인이다. 설시인은 가정 폭력의 피해자로 아들과 함께 살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오로지 시심(詩心) 하나에 의지해 시인으로 성장하였다. 설미희 시인은 장애 때문에 장애인 소재 글을 쓰는 것을 거부하는 대신 오히려 장애에 대한 경험으로 장애인의 현실을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어(詩語)로 전달하고 있다.

구상숫대문학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맹문재 교수는 ‘설미희 시인의 시 쓰기는 단순한 취미나 재능의 표현이 아니라 생을 영위하고자 하는 절박한 바람이면서 구체적인 행동이기에 폐부를 찌른다’고 극찬하였다. 2022년 수상작 ‘친밀한 타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눈을 떴다

온 우주에 손가락 하나

까닥할 수 없는

몸만 똥똥 떠 있다

유일하게 감각이 살아 있는

이 잔인한 귀도 눈을 뜬다

지금은  
남의 손이 아니면  
소변조차도 뽑아낼 수 없는 몸뚱아리  
알람 소리에  
감정 없는 기계적인 메마른 손길이  
아랫도리에 관을 꽂는다  
바우처 카드 720시간  
늙은 여자가  
친절하게 바코드를 찍는다

연명을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해서  
소변 줄을 꽂아 주고 있을까  
집 안 가득  
소변 줄을 타고  
아직 살아 있다는  
존재의 냄새가 난다

시 '친밀한 타인'은 중증의 장애인과 활동지원인의 관계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화자는 하루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고 타인은 나이가 많고 경

험이 풍부한 직업인이다. 사람은 죽은 듯이 잠에 빠져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면 눈을 뜬다. 화자는 눈을 뜬 순간 움직여지지 않은 몸이 인식되어 한없이 무력해진다. 눈과 함께 귀도 떠쳐서 세상 이야기들이 귓속으로 들어오는데 화자는 그런 일상에서 배제된 삶이기에 보고 듣는 일이 잔인한 고문이다.

화자는 이렇게 매일이 고통스러운데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것이 아닌 기계에 의존해서 일어난 활동지원인은 화자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이 은밀한 곳을 함부로 드러내게 하여 소변줄을 끼운다. 그리고 바우처를 찍는다. 그것은 돈을 버는 행위이다. 그녀도 살기 위해 역겨운 소변줄 꽂기를 하는 것이다. 화자는 소변줄에서 새어나온 지린내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인 사이는 친밀한 관계이다. 목욕도 시키고, 화장실도 함께 들어간다. 가족이 아닌 남에게 몸을 보여준다면 친밀한 사이임에 분명하지만 활동지원인은 그것이 직업인 타인에 불과하다. 장애인들을 위해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던 구상 선생님은 지금 우리 곁에 없지만 온기를 주신다. 장애인들의 어른이고, 스승이며 영원한 영웅이시다. 친밀하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관계인데 우리 사회는 마음이 없이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친밀한 사이가 많아 약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한다.

## 불가사의

### 남해 정사

단음사 주교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일은 4살 때의 일이다. 그날은 외할머니의 장례 마지막 날이었다. 외할머니의 상여는 외갓집을 나와 남해 갈화리 마을을 가로질러 논과 밭을 지난 후 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4살 나이의 나는 죽음과 장례에 대한 관념적인 개념은 당연히 없었고, 삶에 대한 의미도 모른 채 외할머니 상여 뒤를 졸졸 따라갔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았던 어린 나는 어느 순간 상여와의 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물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시골의 논과 밭에는 농사철에 물을 대기 위해 사이마다 물웅덩이를 파 놓는다. 나는 그곳에 빠져있었다. 왜 물웅덩이에 빠졌는지, 어떻게 빠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는 것은 물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순간부터였다. 삶의 의미도 모르는 4살 나이의 나는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물웅덩이는 마치 우물처럼 돌로 높이 쌓아올린 웅덩이였다. 나는 필사적으로 살기위해 돌을 부여잡고 기어오르려 노력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는 오를 수가 없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논길사이를 맨발로 울면서 뛰어 내려오고 있었다. 어떻게 물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는 것은 맨발로 울면서 뛰어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이다. 왜 물웅덩이에 빠졌는지, 어떻게 물웅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외갓집에 도착한 나는 외사촌형의 손을 잡고 그 물웅덩이로 다시 갔다. 외사촌형은 물웅덩이에 둥둥 떠 있던 내 신발을 대나무 작대기로 건져주었다.

친척들과 마을사람들은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나를 살려주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성인키보다 깊고 높은 물웅덩이를 4

살 꼬마 혼자 나올 수 없기에 이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다.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승직자가 된 나는 내가 왜 물웅덩이에 빠져야 했는지 그리고 물웅덩이에서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승직자가 되기 위해 사무생활을 시작한 나는 불공을 하면서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된 일이나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 아프게 했던 일이 생각나면 참회불공을 했다. 이윽고 내 기억은 4살 때의 그 일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그 이전의 일은 생각나지 않았다. 몇 달의 시간이 지난 후 새벽불공중에 꿈속의 일인듯 그날 이전의 날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상세히 말할 수 없다. 그 일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귀신 찢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다. 이 세상에 기적이라는 것은 없다.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기나긴 삶의 흐름만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의 발생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기적은 없다. 단지 우리가 그 인과 연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러한 일을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한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백 살에 가까운 바사익왕의 어머니는 오래 전부터 병석에 누워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효성스런 왕은 향과 꽃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께 공양하고,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로 갔다. 전례없이 한낮에 찾아온 왕을 보고 부처님이 물으셨다.

“이 대낮에 웬일이시오?”

“부처님,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백 세에 가까운 어머니는 매우 노쇠하셨지만 저는 한결 같이 공경해왔습니다. 만약 이 왕의 자리로 어머니의 죽음과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왕위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말과 수레와 보물과 이 나라까지도 내놓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살아 있는 모든 목숨은 반드시 죽는 법입니다. 모든 것은 바뀌고 변하는 것, 아무리 변하지 않게 하려 해도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요. 마치 질그릇이 그대로 구운 것이건 약을 발라 구운 것이건 언젠가 한번은 부서지고 마는 것과 같소. 늙음과 질병과 죽음과 무상, 이 네 가지 두려움이 몸에 닥치면 그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요. 마치 큰 산

이 무너져 사방에서 덮쳐 누르면 아무리 발버둥쳐도 빠져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소. 견고하지 못한 것은 아예 믿을 것이 못 되오. 그러므로 법으로 다스려 교화하고 법 아닌 것으로 다스리지 마시오. 법으로 다스려 교화하면 그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천상에 태어나지만, 법 아닌 것으로 다스리면 죽은 뒤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오.”

왕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니 여러 가지 슬픔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나라 일이 많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사익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물러갔다.

(증일아함경, 增一阿含經)

사람의 생명은 산의 물과 같아서 오늘 있으나 내일을 보존하기 어려우니 어찌 마음대로 악한 법에 머물 것이며, 건장한 신체도 머물지 않는 것이 뛰는 말과 같은데 무엇을 믿고 교만하라.

(열반경, 涅槃經, 불교총전 발췌)



## 다시 걸은 남산길

김봉래

불교방송 전법후원국장

오랜만에 남산길을 다시 걸었다. 무더위에 이어 강한 태풍이 지나갔던 여름철을 보내고 추석을 코앞에 둔 청량한 가을, 한 발씩 내딛는 발걸음이 가볍다. 숲속 그늘에 드리워진 가을 정취 속에 멋진 도반들과 함께한 덕분에 기쁨은 더했다. 사부대중이 함께한 야단법석(野壇法席)에 코로나도 잠시 자리를 비켜준 느낌이였다.

필자가 남산길을 좋아하게 된 것은 젊은 시절 유네스코 행사를 취재 겸 참여한 인연이다. 유네스코는 어린이날이면 남산길을 맨발로 걷는 행사를 했는데, 봄날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흩날리는 숲길을 걷다보니 마치 선경(仙境)에 있는 듯한 감흥을 받았다. 동참한 가족들도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언젠가 나도 이런 행사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발원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다.

정말로 세상에 우연은 없다. 세월이 흘러 다른 부서에 부서장으로 배치되어 걷기행사를 주관하게 되다니. 우선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시점에 걷기를 하면 연등행렬 참가자들에게는 준비운동이 될 수 있겠다 싶었다. 그리고 일반 도로가 아닌 숲속 길이라서 공기도 더 좋고, 도란도란 걸으며 정을 나누고 마음



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연세 든 분들도 쉽게 걸을 만한 적당한 거리를 계획했다. 또 걷기만으로는 너무 조출하다 싶어 스님 세 분의 북콘서트도 진행했다.

이제 와서는 편안하게 떠올리는 추억이지만 진행과정에서는 힘든 일도 없지 않았다. 행사 자체에 부정적이던 간부가 “행사 당일 비가 오면 어떡하죠?”라고 했다. ‘어떻게 하긴요.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대처해서 해야지요.’라며 속으로 상대를 비난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이유를 백가지도 댈다면서.

아뿔싸. 일요일 행사를 앞두고 이틀 전인 금요일부터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취소 여론이 높아졌다. 그렇지 않아도 한 번 연기되었던 행사인데다 홍보도 다 해놓았는데 갑자기 취소되면 회사의 이미지 하락이 걱정되었다. 오시라고 개인적으로 초청한 지인들에게도 송구스러운 일이다. 사내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다행히도 사장님은 직원 단합대회를 겸하고 가족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 일이던지.

초청 내빈인 서울시장 측에는 바쁘시면 꼭 오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연락을 드렸다. 참석자가 너무 적어 초라하게 비쳐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은 “시장님은 뜻 깊은 행사에는 무조건 갑니다”라는 것이었다. 아... 감사하면서

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당일 오전까지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며 서울시가 직접 주최한 걷기행사는 어렵사리 진행됐다. 그런데 오후 들어 날이 개면서 우리 행사는 다소 무난하게 진행됐다.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탄성이 절로 나왔다. 시장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아! 스님들은 이렇게 법력이 높으십니다. 비도 그치게 하고요.” 이 때 동참했던 한 스님 왈, “그럼요. 스님들이 그 정도 법력은 있지요.” 대중이 다들 웃었다.

염두에 두고 싶지 않았던 상황은 도래했고, 그에 따른 대처는 이뤄졌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에 가슴을 졸여야 했다. 상황은 언제나 가변적이며, 개인의 바람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래를 바라봄에 있어서는 그 누구의 예단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어찌라고? 이것도 한 판의 바둑이요 저것도 한 판의 바둑이라는 말처럼 일체가 인연소생(因緣所生)이니 어떤 상황도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인연사에서 항상일로의 깨달음을 지향하는 우리는 행복한 불자가 아닌가.



## 명상으로 마음근력 다지기

신진옥 법사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회복탄력성이란 우리가 스트레스나 심한 역경을 맞이했을 때 자신의 내적 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역경을 성숙한 경험으로 바꾸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게 닥친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 한마디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인간의 총체적 능력을 말한다.

이는 어느 정도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매우 역동적이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며, 환경 요인과 문화·교육 개인의 노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탄력성을 누구나 다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마치 고무공처럼 강하게 튀어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리 공처럼 바닥에 떨어지는 즉 시 산산조각이 나는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타고난 체력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회복탄력성의 크기 또한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회복탄력성은 우리가 운동과 훈련을 통해 체력을 기



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노력과 훈련을 통해 키워나갈 수 있다. 몸이 큰 힘을 발휘하려면 강한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이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종 회복탄력성을 마음의 근력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러한 마음의 튼튼한 근력은 마음챙김 명상을 통한 주의 집중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난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은 우리의 뇌가 충분한 가소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뇌는 변한다. 인간의 뇌는 딱딱한 컴퓨터 같은 기계가 아니다. 마치 말랑말랑한 찰흙이나 플라스틱처럼 얼마든지 변형 가능하다. 우리의 노력으로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기고, 더 중요하게는 시냅스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생겨난다. 우리는 환경과 생활 방식 그리고 어떤 심적 활동을 할지를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마음과 뇌를 자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신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특히 마음챙김 명상의 주의 집중하는 법을 습득하면 뇌의 각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마음챙김은 이 순간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선입견 없이 바라봄과 동시에 판단을 멈추고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 감각

등을 그대로 알아차리며 수용하는 의식적인 노력이다.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 더 쉽게 현재 순간으로 주의를 둘 수 있다. 이는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머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명상은 우리의 뇌와 마음이 활기를 되찾게 도와주며 우리는 노력을 말미암아 얼마든지 스스로 변할 수 있다.

뇌 과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이 처리되는 부분은 사람마다 서로 다르다고 한다. 또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도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나 시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뇌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 정서가 깊이 각인된 뇌를 사용한다. 이들은 그야말로 실패를 성공의 원동력으로 오늘의 아픔을 내일의 기쁨의 원천으로 삼는 셈이다.

오늘부터 조금씩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회복탄력성, 마음근력이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다.

## 사찰의 커피문화

### II. 커피의 한국 전래와 제조과정

김상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학전공 / 바리스타

### 3. 커피 원두의 추출방법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원두는 그라인딩<sup>1)</sup> 추출방법으로 온전한 커피가 되어 나온다. 여기에서도 생두의 생산과정과 마찬가지로 그라인딩 추출방법에 따라 커피의 맛이 좌우되기에 정교함이 요구된다. 먼저 일반적인 커피원두의 그라인딩 단계는 크게 입자를 굵게 할 것인지, 중간 굵기로 할 것인지, 가늘게 할 것인지, 완전한 미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추출도구 역시 달라지는 형태를 취한다. 이 둘은 커피 본연의 맛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라인딩을 위한 도구로는 전동 그라인더와 수동 그라인더가

1) 그라인딩(grinding) : 커피용어로 그라인딩(grinding)은 커피원두의 추출 면적을 넓혀주기 위한 작업으로, 원두를 분쇄하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그라인딩 단계는 굵게(coarse), 중간 굵기(medium), 가늘게(fine), 미분(micro)등으로 나뉜다.

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58747&cid=48181&categoryId=48261>.

있다. 전동 그라인더는 말 그대로 기계를 이용한 믹서기와 같은 형태의 도구이다. 수동 그라인더는 맷돌처럼 사람의 손을 타서 돌리는 핸드밀의 형식을 말한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즉 원두 분쇄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열의 발생을 줄여야 커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특성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되지만 일관된 입자를 같아야 하는데, 따라서 열을 내지 않는 수동식 그라인더가 진면목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그라인딩 된 원두가루는 다음과 같이 굵기에 따라 추출 도구가 상이하다. 아주 굵은 입자의 경우는 차가운 커피를 즐기는 침출식 더치기구가 더 적합하다. 적당히 굵은 입자는 일관되게 거친 분쇄를 통해 주로 여과지가 필요 없는 프렌치 프레스(French press)나 프레스 팻(Press pot)으로 사용한다. 또한 중간 굵기의 입자는 진공포트나 영구 필터를 사용하는 핸드 드립 커피에 사용되며, 적당히 가는 입자는 사이폰(Siphon) 추출에 적합하다. 더욱 가는 입자는 시중 카페에서 기본적으로 구비된 에스프레소(Espresso)를 추출하는 에스프레소 머신과 에스프레소 머신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불리는 모카포트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미분은, 끓이는 터키식 커피로써 이브릭 추출방법이 적합하기 때문에 주로 사용한다.

여기서 침출식과 여과식은 커피의 추출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침출식은 추출기구에 커피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이나 찬물을 넣어 가열하거나 침지시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여과식은 원두가루를 필터에 담아 마찬가지로 뜨거운 물이나 찬물을 부어 투과시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침출식이 여과식보다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지녀왔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과식인 에스프레소 머신과 핸드드립 형태의 도구들이 더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에스프레소 머신과 핸드드립은 같은 여과식이나, 도구의 규모와 가격 차이를 시작으로 하여, 사용되는 여건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그라인딩 방식에서 전동 그라인더와 수동그라인더의 장단점과 매우 비슷하다. 특히 에스프레소 머신의 경우 크기가 큰 만큼 기계의 성능이 탁월하다. 에스프레소 원액을 기본으로 에스프레소를 제외한 다양한 커피의 제조 및 신속한 추출이 가능하며 머신의 성능에 커피의 맛이 좌우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다음으로 핸드드립의 경우 크기가 작고 저렴하여 가정이나 사무실 등 사용이 용이하다. 다소 추출 시간이 걸리지만 커피 본연의 부드럽고 깔끔하며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추출자의 기술에 따라 맛이 다를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



성으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서는 내부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커피 도구들을 사용하게 된다. 보편적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커피 메이커, 핸드드립 도구들을 갖춰 놓고 근무하거나 휴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시중에 자리 잡고 있는 카페 가운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앞에 놓여있는 머신과 모카포트로 시작으로 오늘의 커피라고 불리는 핸드드립 커피 메뉴, 그리고 커피를 즐겨 찾는 가정이라면 구비되어 있는 커피 메이커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이러한 모습은 불교의 수행도량인 사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를 바탕으로 짐작하건대, 정확하게 언제부터 커피문화가 형성 되어 감을 보여 왔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종단과 산하기관 그리고 사찰까지 자동적인 머신보다는 수동형 핸드드립을 더 선호하고 음미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찰 내에서도 차\*뿐만 아니라 커피의 본래 맛과 멋을 향유함으로써 또 하나의 문화로 불리게끔 형성되었다.

## 차의 성질 2

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 교도



전국의 여러 산들이 붉게 물들고 낙엽 밟는 소리가 좋아지는 본격적인 가을입니다.

나들이 가기에는 좋은 계절이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자칫하면 건강상태가 나빠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차의 성질 두 번째 시간으로, 차의 성질과 함께 나의 건강을 지키는 몇 가지 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미자차의 오미자는 신맛, 쓴맛, 단맛, 짠맛, 매운맛의 다섯 가지 맛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미자의 신맛을 내는 ‘고미신’이란 성분이 폐를 강화시켜 기침을 멈추게 하고 ‘리그난’ 성분이 있어 간에서의 해독 작용을 촉진하여 간의 기능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비타민 성분이 풍부해 점점 건조해지는 요즘 같은 날씨에 꾸준히 마신다면 피부미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이섬유 역시 풍부해 장내 노폐물을 제거하여 변비 해소뿐만 아니라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단, 오미자는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사람은 장이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오랫동안 마시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인삼, 하수오와 더불어 3대 장수 명약 중 하나로, 당뇨병 완화에 효과적인 열매인 구기자를 말려 끓인 구기자차입니다. 최근에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암 성장을 막아주는 항산화 식품으로 인정받으며 할리우드 스타들이 즐겨 먹어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구기자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혈당 수치 조절에 뛰어난 효능이 있고, 이 성분들은 당분을 세포막으로 이동시키는 촉매제인 인슐린과 혈중 포도당 농도를 균형 있게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또한 구기자에는 독성이 없어 매일 물대신 마셔도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성질이 차가워 장이 약한 분들은 대추나 생강을 같이 넣어 드시거나 과할 정도로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가을에 제철인 감의 잎을 이용한 감잎차, 가을과 어울리면 가장 잘 어울리는 차일 것입니다. 감잎에는 감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고, 열에 의해 잘 파괴되지 않아 차로 만들어 마시기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피부 미용에 좋고, 이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의 부기를 빼며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은 가을에 수확하나 감잎차에 쓰이는 감잎은 주로 5~6월에 어린잎을 따서 만듭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직접 감잎

## 홍낙최의 《국화와 나비》 네 형제가 함께한 그림

위드다르마 편집실

차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싱싱한 감잎을 깨끗이 닦아 그늘에 말린 후 잘게 썰어 80도 정도의 물에 잘게 썬 감잎 1~2티스푼을 넣어 2~4분간 우려낸 후 마시면 됩니다. 또한 차를 우려낸 후 좀 더 오래 식히면 단맛이 더 잘 우려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로 무침이나 나물 등 각종 요리의 재료로 이용되지만 뛰어난 효능으로 인해 차로 끓여 마시기도 하는 도라지 차입니다. 지금 같은 일교차 심한 환절기에 따뜻한 성질을 가진 도라지는 감기를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또한 도라지에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성분은 당뇨예방과 항암작용,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속의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을 도와 고혈압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비타민C가 풍부하고 칼슘, 철, 인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위가 약하거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은 장기간 복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따뜻한 차를 마시면 몸이 녹아 마음마저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기온차가 심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요즘, 특히나 오랫동안 코로나와 싸우며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자신과 가족, 친구에게 카페인이 든 커피보다 과하지 않은 차 한 잔을 권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화와 나비[菊蝶圖]>(덕수 2483)라는 제목의 초충도[草蟲圖] 한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풀잎이 말라 가는 가을 정원에서 국화는 홀로 꽃을 피워 올립니다. 그림 속 두 줄기 국화에는 각각 분홍색과 노란색 꽃이 피어 있습니다. 철 늦은 나비도 반가이 꽃을 향해 날아들고, 여치 한 마리는 꽃 아래를 서성입니다. 국화 곁에는 마른 붓질로 그려낸 작은 바위가 놓여 있을 뿐, 배경은 비어 있습니다. 간결한 화면에 고고한 서정이 묻어납니다. 그림 위쪽 여백에는 화제[畫題]와 발문[跋文]이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 그림과 어우러진 글은 조선시대 서화[書畵]의 멋을 잘 보여 줍니다.

### 국화, 초야에 은거한 선비의 상징

화제의 내용은 국화가 갖고 있는 문학적 전통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사람들이 감각적인 대상에는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만 담박하여 도[道]에 가까운 것들은 멀리하기 마련이라고 하였습니다. 화제에는 화려한 오얏꽃과 복사꽃은 그리기 쉽지만 수수한 국화의 아름다움은 그리기 어렵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국화와 나비>를 그린 이가 도[道]에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찬사에 다름 아닙니다.



홍낙최, <국화와 나비>, 조선 1751년, 비단에 옅은 색, 61.2×39.2cm, 덕수2483

### 국화와 나비를 제작한 풍산홍씨 네 형제

발문은 그림 그리고 글을 쓴 사람들의 면면을 잘 보여 줍니다. 홍낙성(洪樂性, 1718~1798)이 쓴 이 그림의 발문에 따르면, 그

림은 홍낙최(洪樂最, 1735~1757)가 그렸으며 화제는 홍낙명(洪樂命, 1722~1784)이 짓고 홍낙삼(洪樂三, 1734~1753)이 글씨를 썼습니다. 풍산 홍씨 집안의 네 형제가 그림을 함께 제작한 것입니다.

발문을 쓴 만형 홍낙성은 정조(正祖, 재위 1776~1800) 때 영의정에 이르고 기로소(耆老所)에 드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화제를 지은 둘째 홍낙명 또한 훗날 관료로서 병조판서 등을 두루 역임하였습니다. 반면 그림을 그린 막내 홍낙최와 화제 글씨를 쓴 셋째 홍낙삼은 각각 23세와 20세로 요절하였습니다. <국화와 나비>를 제작한 1751년에 홍낙최는 17세, 홍낙삼은 18세에 불과했습니다.

꽃과 나비를 그린 이 한 장의 그림에는 18세기 중엽의 문화적 기호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관람자는 선비의 꽃 국화를 그린 17세 소년의 그림 솜씨와 네 형제의 우애라는 표면의 의미에 먼저 마음이 움직입니다. 만형이 쓴 발문을 들여다보면 형제들이 변치 못한 재주를 뽐낸다는 혐의를 벗겨내려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이들은 선비의 꽃인 국화를 주제로 삼고 예스러운 구도를 택하여 문인다움을 잃지 않고자 했습니다. <국화와 나비>는 홍낙최 개인의 소탈한 심성으로 빚어낸 그림일 뿐 아니라, 형제들이 공유한 집단 의식이 용해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사대부의 마음속 풍경이 <국화와 나비> 한 폭에 펼쳐집니다.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 이재호> 제공

# 청춘의 춘천상

lovely찌이

## # 춘천행 기차에 몸을 신다

7080세대라면 ‘춘천 가는 기차’에 추억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청량리역을 출발해 춘천까지 덜컹거리며 달렸던 그 기차, 꼬리 칸 끝자락에서 창문 너머 넓게 펼쳐진 푸르른 풍경을 바라보며 다리 꼬고 앉아 통기타를 튕기는 친구의 멜로디에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덜컹덜컹 달렸던 춘천 가는 청춘 열차가 떠오른다. 승무원이 끌고 오던 왜건에서 삶은 달걀과 오랜 시간 변함없는 사이다 한 병 손에 들고 마주 앉은 친구들과 수다 떨던 그 시절, 청춘의 대명사는 춘천이 아니겠나^^

겨울이면 온 세상 하얗게 뒤덮여 눈의 나라가 되어 있고 봄이면 소양강 처녀가 명든 가슴 어루만지며 해 저문 소양강에서 황혼을 고즈넉이 바라보고 여름이면 거리 골목골목마다 커피향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가을이면 메타세쿼이아 길이 드높은 가을 하늘을 더더욱 푸르게 해주는 춘천을 다녀오기로 계획했다.

‘누구랑 같이 가지? 그래도 1박2일은 다녀와야 하는데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마음 맞는 친구랑 다녀오면 더 즐거운 추억여행이 될 것 같아. 그래, 이번 여행은 너로 결정했어!

“소영아~ 다음 주말 시간 어때? 나 믿고 따라와 볼래?”

흔쾌히 오케이를 해준 친구를 위해 여기저기 여행 여정을 꼼꼼히 계획해본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선 아쉽게도 춘천까지 가는 기차가 없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시외 버스에 몸을 싣고 그동안 일상에 지친 서로를 위로하며 4시간을 자다 깨며 수다 떨다 보니 어느새 도착한 춘천.

전화 한통으로 렌트를 하고 제일 먼저 들러 볼 곳은 봄, 봄의



김유정문학촌이다. 네비의 안내를 받아 움직였다. 한옥으로 만들어진 역사와 정류장은 많은데 이렇게 강렬한 궁서체의 간판과 안내문은 처음 만나 보는 듯하다. 여기저기 모두 궁서체이다.

### # 동백꽃, 봄, 봄.

학력고사에 대비하여 내용보단 글 자체를 달달 외우던 시절, 나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김유정을 처음 만났다. 폐결핵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김유정 작가는 30년도 안 되는 짧은 생을 살면서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는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2년여 동안 30편에 가까운 작품을 남길 만큼 열정적이었다.

“동백꽃, 봄, 봄.”

소영이와 이야기 나누며 내용을 떠올려 보니 소처럼 우직한 데릴사위와 욕심쟁이 장인의 이야기로 둘의 모습이 웃기기도 하지만 시대 비판적인 시선이 깃들여 있어 성인이 되어 곱씹어 보는 봄은 우리에게 다른 감성으로 다가왔다.

“빙장(장인)님! 인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유”

‘근데 강원도면 안 그러겠더래요가 맞는 거 아닌가?’

김유정문학촌은 대표적인 단편문학 작가 김유정(1908~1937)의 위대한 문학적 업적을 알리고 그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고향인 실레마을에 조성한 문학공간이다. 김유정은 실레마을에서 목격한 일을 처녀작 산골나그네의 소재로 삼았고 이곳에서 여러 작품을 구상하였으며, 마을의 실존 인물들을 작품에 등장시켰다. 마을 곳곳에 작품에 나오는 지명을 둘러보는 문학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당시 모습대로 복원한 작가의 생가와 문학전시관 외양간, 디딜방아 간, 휘계 정, 연못 등이 설치되어 있다.

춘천여행을 계획하였다면 들려서 추억을 되새겨 보는 것을 추천한다. 여기저기 김유정의 소설의 흔적을 따라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나면 미처 몰랐던 소설들의 내용도 접하게 되고, 민속촌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움에 떨어지던 낙엽에도 까르르 웃음 짓던 여고생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 # 내륙의 바다, 소양호 ①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두견새 슬피 울던 소양호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이고, 웬 차들이 이리도 많아? 예약해 둔 유람선 시간에

못 맞추겠어. 어떡해.’

발 동동 거리며 목을 쪽 빼고는 창밖의 정차된 차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우리는 겨우 유람선 출항 5분 전 주차장에 도착했다. 안내원의 도움으로 유람선에 올라타서야 소양호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입이 벌어졌다.

‘와~~~ 여기 진짜 호수야? 바다 아니야? 이거 실화냐...’

유람선 갑판 위에서 느껴보는 시원한 바람을 마주하고 서서 바라보는 소양호는 자연의 위대함을 몸소 느끼며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들었다.

소양강댐은 완공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사력댐이었다고 선장님의 너스레가 들려온다. 현재도 5위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자긍심이 대단하셨다. 높이 123m, 만수위 수심 198m, 제방 길이 530m, 저수량 29억 톤. 연간 353GWh 전력을 생산한다는 설명이 들렸는데 문과생들이었던 우리는 수치보다는 눈으로 보는 웅장함에 더 매료되었다.

유람선에서 바라보는 소양호의 주변은 산세가 멋스럽게 이어져 있었다. 다른 댐들은 그냥 획 트인 호수 풍경이 펼쳐지는 느낌이었다면 소양호의 풍경은 산도 멋지고 산봉우리와 맞닿은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더라는 것이다.



## 가득 차 있느냐?

범일 정사  
정각사 주교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투명한 큰 병을 하나 들고 들어왔다. 그 병 안을 골프공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병이 가득 차 있느냐”고 물었다.

학생들은 일제히 “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교수는 작은 조약돌을 한 상자 들어 올려 그 병에 쏟고는 가볍게 병을 흔들었다. 작은 조약돌은 골프공 사이사이로 굴러 들어갔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다.

“이 병이 가득 차 있느냐?”

학생들은 또다시 “네” 대답했다.

이에 교수는 모래 한 상자를 들어 올려 그 병 안에 쏟아 부었다. 모래는 조약돌 사이사이의 공간을 채웠다.

교수는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다.

“이 병이 가득 차 있느냐?”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네” 라고 대답했다.

교수는 이번엔 물을 들어 올려 가득 차 있는 병에 부었다. 두 병의 물을 붓고 나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물었다.

“이 병이 가득 차 있느냐?”

학생들은 대답 대신에 웃기 시작했다. 잠시 후 조용해지자 교수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나는 자네들이 이 병이 자네들의 인생임을 알았으면 하네.”

학생들은 큰 병에 골프공을 넣자 가득 차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병속에는 작은 조약돌과, 모래, 물을 더 담을 수 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의 한계를 단정 지어 놓고 사는지도 모른다. 나의 한계는 내가 가진 생각보다 더 높다.

## 탑묘 塔廟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산은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 그곳은 신들이 내려오고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는 성스러운 곳이다. 자연계에는 자연을 지배하는 큰 힘, 눈에 보이지 않는 정령의 작용이 있으며, 이 정령이 우주의 대령(大靈)에 이어지고 정화되어 조령(祖靈)이 되기도 한다. 즉, 산은 조령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탑묘(塔廟)는 이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시설은 인공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신들의 나라로 건너가는 통로가 되는 시설이다. 탑묘는 스투파(stūpa), 차이티아(caitya)라고도 하며 이 구별은 혼동된다. 그러나 스투파는 우주인 나무(=브라흐만·생명창조성)의 핵심을 이루는 군엽(群葉)을 가리킨다고 하며, 겁수(劫樹)와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 스투파는 빛나는 불의 모임의 뜻이며 화신(火神) 아그니의 성격을 지닌다고 한다. 아그니는 천지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 신으로, 태양의 분신이기도 하고, 만물을 창조하는 근원의 힘인 태양을 의미한다. 더욱이 태양은 하늘에 있는 수\*와 일체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과 관련된다고도 여겨진다. 이 때문에 우주의 생명원리인 히란야가르바(Hiraṇyagarbha), 황금태, 원수(原水)의 사고방식과 스투파는 관련이 있다. 따라서 스투파는

빛물과 관계되며 대지모신과 관계된다.

이처럼 스투파는 천지를 잇고 우주의 위대함을 창조하는 신성한 힘을 뜻한다. 차이티야도 스투파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제주(祭柱)와 관련된다. 제주는 강우와도 관계가 있으며, 다산 풍양(豊穰)을 가져온다. 또한 천둥, 번개(vajra 금강)로 하늘과 세속을 잇는 우주수로 알려져 있다. 또 성수(聖樹)와도 관련된다. 차이티야는 수목뿐만 아니라 숲과도 관련이 있으며, 나가(뱀, 물의 정령)의 궁전을 의미한다. 수목은 정령이 머무는 곳이라고도 하며 야크샤(Yakṣa), 락샤사(Rakṣasa, 羅刹), 보르긴(Borgin, 蛇), 아프사라스(Apsaras, 하늘의 수정), 부타(Bhūta, 요괴귀신)의 거처로 알려져 있다. 이들 정령은 태장만다라 최외원(最外院)에 나온다. 또 차이티야는 죽은 자의 뼈를 매납(埋納)하는 곳, 성지(聖地)를 상징하는 보리수와도 동일시된다.

이렇게 탑묘는 원시신앙의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천지를 잇는 우주수(宇宙樹)를 나타내며, 창조적 생명의 상징이자 생명의 물이며, 조령으로서 특성을 나타내며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종교의 종합적·궁극적인 신앙의 상태로 되어간다.

그로 인해 탑의 신앙은 석존의 깨달음을 나타내게 되고, 극락세계를 나타내게 되고, 사원의 중심건물이 되어 불법이 설파되는 도량을 의미하며, 정신적으로는 법계탑파(法界塔婆)가 되어 대일여래의 진수를 나타내게 된다.

## 나이가 들어갈지라도

### 법상 스님

부산 대원정사 주지  
유튜브 '법상스님의 목탁소리' 운영자  
마음공부 공동체 '목탁소리' 지도법사

제가 서울에 한 절에 있을 때 매주 법회를 잘 나오시던 한 70대가 넘으신 어르신께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법회에 빠져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어디를 가시냐고 여쭙었더니 아프리카로 배낭여행을 혼자 떠나신다는 겁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정년퇴직 후에도 늘 책을 손에 놓지 않고 읽으셨는데,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아프리카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감명 깊게 읽고는 그 날부터 배낭여행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행사에서 패키지로 가는 여행이 아닌, 스스로 인터넷에서 비행기 티켓도 사고, 숙소도 알아보고 하면서 말 그대로 대학생들이나 할 법한 배낭여행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셨지요.

보통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해외 배낭여행은 20대 때 젊은 이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늙어서 무슨 배낭여행이야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지난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나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연세가 많아 죽을 날을 앞두고 말씀도 못하며 누워계시는 분들을 보면 의식도 흐릿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한번은 은사스님을 모시고 돌아가시기 직전 상태에 계시는 한 노보살님 병문안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보살님은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늘 화두를 챙기며 수행을 놓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은사스님께서서는 꼼짝도 못하며 누워서 눈만 깜빡거리는 노보살님에게 껏속말로 요즘 어떠신지 안부를 여쭙었습니다. 그랬더니 노보살님은 입술을 움직이면서 아주 가는 목소리로 ‘화두~’라고 하시더군요. 은사스님께서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노파가 죽기 직전까지 화두를 들고 있다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지요. 이처럼 수행에는 젊고 늙고도 없고, 생생할 때나 죽어갈 때나 한결같은 법인가 봅니다.

그런가하면 한 70대 후반 쯤 되신 어르신께서 50대 중반의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시는 분에게 조언을 해준 일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년퇴임 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다시 하나’ 싶어서 그만 두었는데,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그 때가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0대 중반의 퇴임하시는 분에게 “젊은이, 젊을 때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도전해 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늙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나는 이제 늙었고 기

력과 기억력 모두 없다고 스스로 규정지었을 때 늙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늙어간다는 것을 신체적인 부분에서만 바라보지만 결국 늙음은 하나의 정신적인 자기규정에 불과합니다.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이 있습니다. 나이란 허상에 불과합니다. 80대, 90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 하루를 위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도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물질적인 소유나 성공 등 외부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곳에서 찾습니다. 이 육신은 곧 허물어져 갈 것을 알고, 젊은 날의 부귀와 영화가 덧없음을 온 몸으로 경험하여 외적인 가치들의 무상함과 허망함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불법이나 마음공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행과 불법, 마음공부는 더욱 더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위의 노보살님처럼 몸져누워 죽기 직전까지의 의식 상태라 할지라도 수행은 매 순간 처음인 것처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상 스님의 묵탁소리’ 공식 카페

#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①㉠			㉡			②㉢			
			③		㉣				
④							⑤㉤		㉥
		⑥㉦			⑦				
	⑧						⑨	㉧	
		⑩		㉨		㉩		⑪	㉪
⑫㉫				⑬			㉬		
		㉭					⑭		
⑮									
					⑯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카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총지중 홍보실

●정답은 위드다르마 다음 호, 총지신문 10월호 게재

## 가로 열쇠

- ① 불교에서 신행을 비롯한 교의적으로 의거하는 근본 경전
- ② 김연아, 김연경, 우상혁, 손흥민, 황선우
- ③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왕가위 감독 영화
- ④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 유가의 시조
- ⑤ 연산군의 어머니, 조선의 경국지색이자 악녀
- ⑥ 드러나지 않게 숨음, 00근무
- ⑦ 진리의 부처님 말씀을 요약하여 담은 경전
- ⑧ 머스타드 소스
- ⑨ 은백색의 고체 금속
- ⑩ 사람이 끄는 바퀴가 2개 달린 작은 수레
- ⑪ 신문에서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글
- ⑫ 불교에서 기쁘게 재물을 베풀어 내놓는 것
- ⑬ 풍차와 튜립의 나라
- ⑭ 방송국에서 발신하는 전파를 잡아 이것을 음성으로 복원하는 기계
- ⑮ 디즈니 인어공주, 겨울왕국, 토이스토리
- ⑯ 운이 칠 할이고 재주나 노력이 삼 할이라는 뜻

## 세로 열쇠

- ㉠ 소기업 중에서 규모가 더 작은 기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 ㉡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
- ㉢ 가을에 피는 대표적인 꽃
- ㉣ 원인과 결과의 법칙, 불교의 핵심 사상
- ㉤ 유,불교 경전 및 책을 보관하기 위해 사찰 내에 지은 건물
- ㉥ 00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 ㉦ 곤충 채집, 고추000
- ㉧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현상에서 걸리는 시간 간격
- ㉨ 어버이날 꽃
- ㉩ 닭이 낳은 알
- ㉪ 넷으로 나뉘고 다섯으로 찢어진다는 뜻
- ㉫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
- ㉬ 청어나 공치를 냉동과 해동을 반복해 바닷바람에 건조시킨 겨울철 별미
- ㉭ 머리 말리는 기계

## 지난호 독자 정답

## 지난호 정답

①㉑	정	㉒	성	㉓			②㉔	구	㉕
원		대		사			마		간
효		구		③	리	이	타		다
대				후			하		라
④	㉖		별		⑤	㉗	리		
사	리	분			항	아			
	어			㉘		집		㉙	
				무				부	
⑥㉚	㉛	㉜					⑦	전	거
마	카	다	미	아			자		
피		도		⑧	천	㉝		자	
피		도		지	천	명		자	
⑨	㉞		⑩㉟			⑪	청	전	
아	부		수	경		심			
	동		미		⑫	보			*
	⑬					⑭	언	이	설
	산	방	산			감			

〈가로〉	〈세로〉
① 원정대성사 ② 마구간 ③ 자리이타 ④ 사리분별 ⑤ 항아리 ⑥ 마카다미아 ⑦ 자전거 ⑧ 지천명 ⑨ 아부 ⑩ 수경 ⑪ 심청전 ⑫ 심보 ⑬ 산방산 ⑭ 감언이설	㉑ 원효대사 ㉒ 대구 ㉓ 사자후 ㉔ 마타하리 ㉕ 간다라 ㉖ 리어가 ㉗ 아집 ㉘ 무아지경 ㉙ 부전자전 ㉚ 마피아 ㉛ 다도 ㉜ 명심보감 ㉝ 부동산 ㉞ 수미산 * 전설

①	원	정	대	성	사			②	마	구	간
효		구			자	리	이	타			다
대					후			하			라
④	㉖		별		⑤	㉗	리				
사	리	분			항	아					
	어			㉘		집		㉙			
				무				부			
⑥㉚	㉛	㉜					⑦	전	거		
마	카	다	미	아			자				
피		도		⑧	천	㉝		자			
피		도		지	천	명		자			
⑨	㉞		⑩㉟			⑪	청	전			
아	부		수	경		심					
	동		미		⑫	보					*
	⑬					⑭	언	이	설		
	산	방	산			감					

Page. \_\_\_\_\_

삼보에 귀여워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원도 원주시 원곡고도로 불교반에서 생활하는 재소불과 푸딩 이라고 합니다.

달·전·치 삼목에 배워 이리저리 방황하다 영미의 용이 되었지만 강목에서 불법을 만나 부처님의 재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수계를 받고 도반들과 함께 강무를 수행해 살아 수양하고 있습니다. 고도도의 법보시 해주시는 덕에 <위드다르마>를 읽으며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초에 배달되는 <위드다르마>덕분에 한 달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냅니다. 평소 퀴즈 푸는걸 좋아 하는데 이렇게 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사진상 우편으로 밖에 보낼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위드다르마>에 깊은 애정을 보내며 더욱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별 하소서!

2022년 9월 18일  
원곡 반야암

우편으로 편지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상반기 49일	양력
	오전 10시	진호국가불공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홍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b>서울경인교구</b>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종량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b>충청전라교구</b>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b>대구경북교구</b>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내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b>부산경남교구</b>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심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발행일 총기 51(2022)년 10월 1일  
발행인 우인 정사  
편집책임 김상미  
발행 불교총지중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 독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mailto: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김윤서 김종철 법 공 손경옥 안한수  
오승헌 오채원 오현준 이인성 이태남 이해성  
자선화 정법계 정재봉 정화연 총지화 한철수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

✉ 이메일 : [news@chongji.or.kr](mailto:news@chongji.or.kr)

TALK 카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총지중 증보실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편집 후기

언제 누군가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세상이 멀해도  
사랑만은 살아있고  
한 사람은 잊혀져도  
그 사랑만은 남는다고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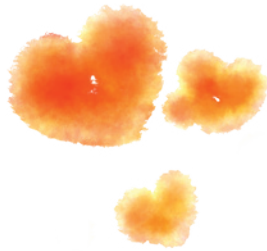
그래서 삶, 사람, 사랑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웬지 말의 모양, 성격, 온도마저  
비슷해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사랑만이 남는다.  
하늘이 좋다  
바람이 좋다  
이 좋은 바람  
이 좋은 하늘  
너에게 보낸다.

시인 나태주 님의 시  
'사랑만이 남는다' 입니다.

10월의 높은 하늘과  
높은 하늘을 따라온 바람과  
바람에 실려온 기억과 추억을 실어  
가을 편지를 써보면 어떨까요.  
사랑만 남은 줄 알았는데  
아직 나도 여기 남아있다고.

10월호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  
- 환당 대중사 법어록 중에서 -